



그리스도의 대사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본 문

사도행전 19:1~7

암 송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행 19:4)”



소외되고 어려울 때 어디에 계십니까?

생각1 다음의 영상을 보고 나눠 보세요.



☐ 에베소의 시대적 상황

1.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였다.
2.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3.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다.
4. 교역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자신들만의 신전이 필요했다.
5. 계약서 작성 후 차액을 가지고 각자의 신전에서 행음을 저질렀다.

*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

* 하지만 믿는다면서도 성령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 들어야 합니다.(행 19: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행 19:2)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매우 당혹스런 질문일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이 질문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에 응답했을 때 비로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그 질문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2) 깨달아야 합니다(19:3~4).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행 19:5~6b)

또한 그렇게 들었으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의 당혹스런 질문(행 19:2)에 변명하고 거부하기는커녕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무능력했던 그들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그들로 하여금 무기력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임을.

우리 역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들었으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ပါ.

3)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행 19:6)

바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뿐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8~10절의 모습처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행 19:8) 자신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힘 있게 전해질 수 있었고(행 19:20), 병 고침의 은사를 비롯해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전체가 주의 복음으로 뒤덮이게 되자, 마술과 눈속임, 온갖 술수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는 복음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행 19:20).

이처럼 성령 충만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힘 있게 그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매1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열매2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나누어봅시다.



열매3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나눠봅시다.

